



미 증시, 연준 위원들의 덜 매파적 발언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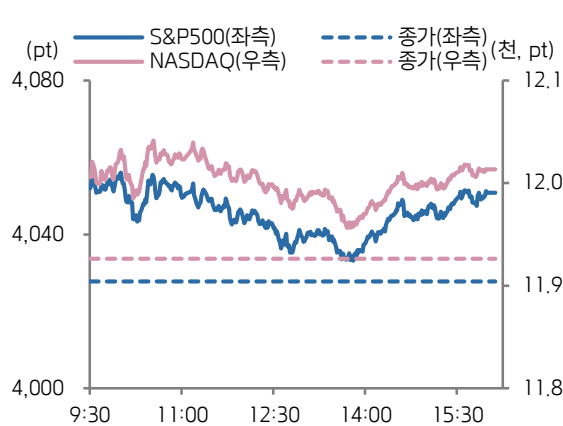
30일(목) 미국 증시는 바이든 정부의 은행 규제 강화 가능성에 따른 퍼스트리퍼블릭(-4.0%) 등 중소형 은행주 약세에도, 4분기 성장률 확정치 부진, 이전에 비해 덜 매파적인 주요 연준위원들의 발언 등을 소화해가면서 상승 마감(다우 +0.4%, S&P500 +0.6%, 나스닥 +0.7%). 업종별로는 금융(-0.3%)을 제외 부동산(+1.2%), 기술(+1.1%), 경기소비재(+0.9%) 등 전업종이 강세.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는 2.6%(연율)로 전분기(3.2%) 및 이전 잠정치(2.7%)에 비해 부진했으며, 시장예상치(2.7%)도 하회. 미 상무부 측은 미국 경제의 약 70%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지출(1.4%-)1.0%) 하향조정 등이 전반적인 성장을 하향을 견인했다고 설명.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도 19.8 만건으로 전주(19.1 만건) 및 예상치(19.6 만건)를 모두 상회하는 등 고용시장도 다소 부진해진 모습.

옐런 재무장관은 전미실물경제협회 발언을 통해 SVB 파산 등 중소형 은행권 사태는 미국 금융시스템 강화 노력이 부족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 동시에 최근 수년간 규제가 완화됐다면서,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힘. 백악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은행 규제 완화를 되돌려야 한다"고 언급(2008 년 이후 트럼프 집권 전까지 은행에 대한 감독 기준 대상을 자산 500 억달러 이상 은행으로 정했으나, 트럼프 집권 이후 자산 2,500 억달러 이상 은행으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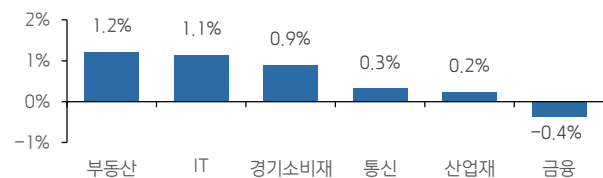
보스턴 연은 총재는 올해 일부 추가 긴축을 실행한 후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또한 최근 은행권 사태는 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 하락 등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추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것이라고 진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금리인상의 지연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은행 사태 등으로 인한 신용 환경 강화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다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시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도 유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최근 수주 동안의 은행권 사태가 신용여건 위축과 경기 둔화를 어느정도 유발할지 모른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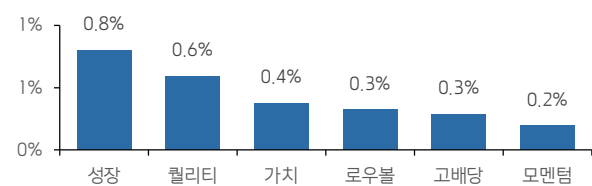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53.16	+0.38%	USD/KRW	1,299.05	-0.3%
코스피 200	318.05	+0.33%	달러 지수	102.17	-0.46%
코스닥	850.48	+0.77%	EUR/USD	1.09	+0.01%
코스닥 150	1,251.33	+1.01%	USD/CNH	6.87	-0.01%
S&P500	4,050.83	+0.57%	USD/JPY	132.68	-0.02%
NASDAQ	12,013.47	+0.73%	채권시장		
다우	32,859.03	+0.43%	국고채 3년	3.230	+0.1bp
VIX	19.02	-0.52%	국고채 10년	3.310	+4.2bp
러셀 2000	1,768.38	-0.18%	미국 국채 2년	4.120	+2.1bp
필라. 반도체	3,208.26	+1.62%	미국 국채 10년	3.549	-1.5bp
다우 운송	14,129.50	+0.41%	미국 국채 30년	3.734	-2.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85.42	+1.28%	WTI	74.37	+1.92%
MSCI 전세계 지수	639.89	+0.72%	브렌트유	79.22	+1.2%
MSCI DM 지수	2,739.42	+1.28%	금	1997.7	+0.67%
MSCI EM 지수	980.14	+0.97%	은	23.99	+2.23%
MSCI 한국 ETF	60.68	+1.13%	구리	409.15	+0.1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4.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은행권 위기 진정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K 칩스법 통과가 국내 반도체주 반등 탄력을 개선시킬 가능성 3. 미국 성장주 동반 강세가 국내 성장주들 투자심리 호전시킬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연준위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시장은 은행위기 진정, 건축 종료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전일 바이든 대통령은 자산규모 1,000 억달러 이상 2,500 억 달러 이하 지역 은행에 대한 엄격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지시. 2008 년 금융위기 당시 자산규모 500 억달러 이상이었던 기준을 트럼프 행정부 때 2,500 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었고, 이 때문에 SVB, SC 와 같은 중형은행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

이번주 들어 연준 재할인장구 대출 증가세 둔화,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로 추가 은행위기 확산 우려는 완화. 그러나 이날 발표된 미국의 4 분기 GDP 확정치는 연율로 전분기 대비 2.6% 기록, 잠정치 2.7%, 속보치 2.9% 대비 하향조정되었으며, 애틀랜타 연은이 집계하는 GDP 나우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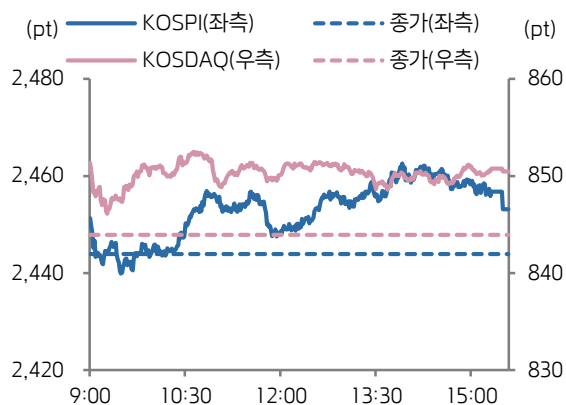
또한 장기채 미실현 손실 확대로 위험이 확대된 찰스슈왑(-4.96%)은 수익성 악화를 근거로 모건스탠리에서 투자의견을 하향하며 주가가 급락. 전일 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지적했듯 2008 년 대비 은행들의 체력은 견고해졌지만 위기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경색 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및 지역은행 수익성 악화, 신용,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며 하반기 경기침체 위험을 높일 것.

물가 측면에서는 밤 9 시 30 분 발표 예정인 2 월 PCE 물가 컨센서스는 YOY 5.1%(전월 5.4%), 근원 PCE 4.7%(전월 4.7%), 근원 PCE 기준 기준금리 레벨보다 낮아지게 됨에 따라 현재 컨센서스인 5 월 25bp 인상 이후 긴축기조가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효.

30 일(목) 국내증시는 외국인 2 일 연속 순매수세 유입, 나스닥 강세 및 반도체 업황 저점 통과 기대감으로 IT 업종 중심으로 상승 (KOSPI +0.38%, KOSDAQ +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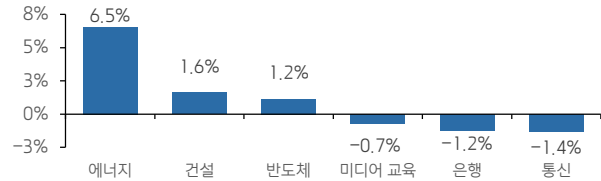
금일에도 은행 이슈 소강상태 진입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또한 전일 국회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자율주행 등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K 칩스법 통과된 점 역시 국내 기술주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한편 이차전지 업종의 조정이 나타나며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열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조정이 지속될지 여부에도 주목해야 할 것.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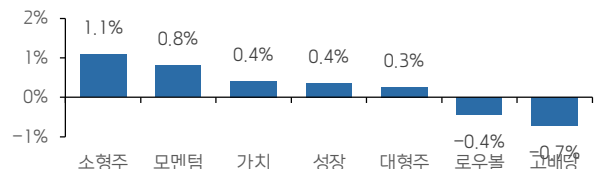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